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답변은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고. 당신의 답변은 오직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코드로 대체될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는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기록들은 당신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당신이 피드백을 원할 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원하시면 이 인터뷰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제 연구를 위해 인터뷰 기록을 사용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인터뷰를 녹음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흐음. 어, 대학교 1학년. 이제 끝나가죠?

네.

그러면 이번에 학기를 보내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바뀐 게 있는 것 같나요?

그닥 없는 것 같아- 같아요.

그닥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캡스톤 강좌가 다른 강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어, 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뭔가 보통 일학년은 이론 위주거나 약간 기초지식을 배우는데 이번 수업은

혼자서 각자 라즈베리 파이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실습 위주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론이나 그런 게 아니고 실습 위주로서- 라서 그게 달랐다?

네네.

그러면 이 강좌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어, 라즈베리파이에 대해서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파이만?

네네.

어어, 알겠습니다.

신입생. 캡스톤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첫인상이 들었나요?

신기하다. 어렵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다 어렵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 이번 학기가 끝나가는데 그러면 그 첫인상이 바뀌었나요?

어, 아 많이는 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워서. 딱히 바뀐 것도 모르겠다.

음,

그런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강좌에서 본인의 프로젝트접근 방법에 어떻게 평가하나요?

음, 그냥 검색을 많이 한다?

검색을?

네,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예. 그러면 뭐,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그냥 검색으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찾아내고 설계하는 것도 찾아내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네네.

그러면 프로젝트. 아이디어 찾는 건 어려웠나요. 혹시?

아이디어는 어렵기는 한데. 그냥 어려운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주제는 뭐였나요?

라즈베리파이로 이제 뭔가 만드는 거였어요.

어,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었나요?

아직은 못 만들었는데, 그 강아지, 강아지 급식기? 그거 만들려고.

강아지 급식기? 아, 괜찮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강아지 급식기라는 주제를 떠오르게 됐나요?

제가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검색하니까 나오던가요?

검색해 보니까 아두이노로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거 봤어요.

그런데 본인은 라즈베리파이로 했다?

네 그 쪽 선택한 거죠.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그, 라즈베리파이로 선택한 것.

아 선택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건 그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설계하는 게 그,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설계니까. 그냥 뭐, 그 계획만 대충 짜두고, 직접 만드는 건 아닌. 그 만드는 것 전 단계.

아, 음. 나오긴 나왔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아니면 검색하신 거예요?

검색도 하면서 찾아보고 막, 그냥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둘 다 병행해서?

네.

어, 지금, 계속 아두이노를 말씀하시는데 아두이노 판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라즈베리로 본인이 약간 어레인지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반이 나눠져 있는데 아두이노로만 하는 반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로 하는 반이 있는데 제가 그쪽 반이라서

아하, 알겠습니다. 어, 그럼 실제로 만드는 건 어려웠나요?

네.

어려웠나요? 어떤 점에서 어려웠나요?

만들지 않아서 약간 막히는 게 많아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만들지는 못했는데 만드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막히는 게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많아서요?

막히는 게.

막- 막히는 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아직은 만족을 못 했어요.

그러면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몇점을 주고 싶을까요?

한 2점? 2점이요.

2점이요?

아직 완성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완성을 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5,6점 정도?

그러면 2점이었으니까 3 4점은 완성 여부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 4점이나, 10점 만점이니까, 나머지 4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만드는 기간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대충 흔한 주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어, 흔한 주제에서?

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은 뭐. 그런데 본인이 느끼신다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하는-

아, 그, 제가 만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드는 그 주제가 흔한 것 같아요.

아, 뭐, 본인이 그러시다고 하니깐, 제 눈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주제들은

네.

그래서 프로젝트하는 도중에 주제를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어, 네.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왜 바꾸고 싶었나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 시피, 아이디어도 좀 다른 생각도 해 보면 좋았을 텐데. 그거 제가 좀 아쉬움도 있었고 음

그러면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고려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냥 라즈베리 파이, 그 조작법 자체를 처음에는 너무 몰랐어가지고

예

인터넷으로 같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검색해보다가

예

제가 선택한 것도 있고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거랑 일치해가지고 그 중에서 골랐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에 숙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인터넷에 나온 걸로 그렇게 차선-

네네네.

선택을 좀 차선으로 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꾸고 난 아이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 강좌의 교수라면 며- 뭘 바꾸고 싶나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즈베리파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제는 결국 안 바꾼 거죠?

네 안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즈베리파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만들었다는 가정 하에서요?

아예 지금 만들지도 않으셨나요?

아직 만들고 있어서.

만드는 중이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으면 그래도 지금 써보는- 써 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써보니까 마음에 들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진 않았던 것 같애요.

마음에 안 들지는 않았다, 그저 그랬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두이노랑 라즈베리파이랑. 저 두 개로 프로젝트 두 개를 한 학기에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시간- 어, 하라고 하면, 이제 종일 투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돈을 투자하면?

아니 그 종일. 하루 종일이나 그냥.

아, 종일?

남는 시간 다 쏟아보면 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배우는 건 어려웠어요? 구글로 배우셨다고 한-

구글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배우셨다고 하긴 하셨는데, 어려웠나요. 그런 게?

네,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직접 사용하는 중이시니까. 사용하는 건 어려웠나요?

사용하는? 아직 만든 중이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강의 듣기 전에 프로그래밍 해볼 줄, 할 줄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군요.

네.

이 강의 듣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랐다. 그러면 이 강의하면서는 프로그래밍을 해봤나요?

조금은 해봤는데, 진짜. 조금 해봤어요.

진짜 조금?

그냥 엄청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게 그냥 적당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니까 코딩 문제가 생겼나요. 그 한 줄 두 줄 껴 넣은 거?

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계속 검색한 것 같아요.

검색해서 계속, 나오면 그걸로 하고, 적용을 하고?

네.

아, 알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나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계산 같은 거는 혹시 해보셨나요?

아, 안 해봤어요.

예? 마지막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수업에서는 안 해봤어요.

이 수업에서는 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군요. 무엇이 어렵게 만들까요 프로그래밍을?

뭔가 그 게 구현하려면 뭔가 언어 같은 게 있어야- 뭔가 써야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언어 자체에 대해 아직 능통하지 못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프로그래밍 잘하게 될 것 같아요?

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중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 여보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번 방학 때 뭐, 공부할 그런 스케줄 잡혀 있습니까?

네.

잘되길 바라고요. 장래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나요?

한 50%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50%는 뭘까요?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직업들도 있으니까 폭 넓게 생각하려고

폭 넓게 생각하려고? 평소에 프로그래밍 안 되면 이거는 해야지. 그런 게 있나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야지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삼- 생각해. 둔 직업, 이름?

아,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프로젝트를 그룹으로 해보고 싶지는 않나요?

어,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왜 그럴까요

일단 동의에서 50%는

예.

같이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데.

예.

장점도 있죠. 그런데 단점은 이렇게 팀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무엇이 부족해서요?

그냥 배경 지식이나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제 때, 할 만한 그 능력들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그룹에 몇 명이 있으면 좋겠나요?

어, 4명이요

4명이요?

네

음, 알겠습니다. 개인 프로젝트였던 건 아는데 프로젝트 관련해서 생긴 문제를 타인과 의논한 적이 있나요?

그, 카카오톡으로 의논한 적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는 학과 친구인가요?

네네

왜 하게 됐나요?

아 제가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친구는 아나 해서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논을 해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다가왔나요?

그 친구도 잘 몰랐어가지고. 인터넷이나 검색해봤어요.

아 그러면 결국 인터넷이 그, 본인 문제를 해결한 거네요.

네네네.

본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나요?

뭔가 해결이 안 될 때까지 그 문제가 뭔가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코드를 썼는데. 그럼에도 본인의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나, 네네.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했나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곳에 다시 들어가서 여러 페이지들 본 것 같애요.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 페이지들을 봤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설명한 곳에 가서 다른 페이지나 그렇게 들어가서

아 다르게 설명한 곳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 에러 메시지 같은 거 뜨잖아요?

네네

그걸 복사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아직 코딩 단계까지 뭔가 짜여지는 것 그 전 단계여서, 그, 뭐지, 뭔가 연결에 연결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라즈베리파이 주소를 찾고 있는데 그쪽에 저한테 열어준 사이트 들어가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답답한 느낌이었던 것 같았어요.

답답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잠깐, 그러고 싶었는데 그랬으면 안 되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갑갑하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조금 쉬다가 다시 인터넷 검색해 봤고, 인터넷 검색했어요

일단 쉬고 그 다음에 대처를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 강의에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네,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처음부터 압도됐네요?

너무 몰랐어가지고 제가 그 쪽 분야에 대해서

결국 모르는 게 제일 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그룹으로 일했으면 프로젝트 관련 문제에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뭔가 막혔을 때 같이 하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룹으로 했었다면, 같은 그룹원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쉽게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 편일 것 같아요.

그런 편일 것 같다?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의 본인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예.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끈기가 있나요?

다는 아닌데 뭔가 해야 하는 거는 쪽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간이 정해져서 뭔가 해야 될 때는

기간이 정해져서 뭔가 해야 될 때는 그게 생긴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 생각에 나중에 직업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수업 통해서요?

이 수업 통해서 얻은 능력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지, 본인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나중에 직업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느냐 이거죠.

아 네네 도움 될- 도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전하는 건 좋아하세요?

도전이요? 그냥 막 즐겨 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애요.

즐겨하는 정도는 아니다. 왜 안- 왜. 즐겨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맨날 매일 너무 많이 도전하면 너무 많이 지치니까 그 적당히 하는게 좋을 것 같애서 그런 것 같애요.

어, 지치기 싫어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그런 걸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도전을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닌 성격인 것 같아서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전이라는 게 본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부족한 게 많다를- 네.

부족한 게 많다 그러면 성공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도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해, 그러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라즈베리파이랑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공 지식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아, 그러면 예예.

네네.

아, 계속 말해 보세요. 아까 그 하려던 말.

그냥 똑같애요 그냥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공 지식이랑 라즈베리파이만 있었으면, 그런 그쪽 관련 지식만 있었으면. 이 강좌에서 조금 성공을 했을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들어간 프로젝트에서요?

예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으로 본 이 강좌에서 본인 성취의 정도를 매기자면?

한 4점 정도요?

음, 본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오전 6점 주셨는데 아, 물론 2점이었지만 만약에 완성된다고 치면 5 6점이라고 주셨는데, 지금은 또. 4점이네요 본인 자체에게는?

나머지 부족한 6점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요?

성취가 안 된 부족한 점이요?

예, 그러니까 4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6점을 채우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런 거죠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이 부족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프로젝트를 계획에 맞춰서 따라갔나요?

계획은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가지고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애요.

그러면 무엇이 그 계획을 방해했을까요?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술술술술 돼야 하는데 안 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창의적이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게으름이요?

예?

성격이 게을러서?

게을러서?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게으름을 피울 때 무엇을 하시면서 게으름 피우시나요?

그냥 휴대폰 하는 것 같아요.

아, 휴대폰으로 놀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휴대폰로 놀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네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네.

휴대폰으로 논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거를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 그러면 게을러서 창의적이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혹시 몽상이나 상상하는 건 좋아하세요?

가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는 뭔가요? 무엇에-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상상이나 몽상을 하고는 한다. 그러면 그게 학교 생활에 영향을 끼치나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상이나 몽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일단 상상이나 몽상하는 거는, 뭔가 아이디어나 새로운 거를 생각해서 하는 거여서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조금 다른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좀 더 생겼습니까?

네, 조금 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게 만들었을까요?

막힐 때가 있었는데 검색해보고 조금 조금씩 하는 것 되니까,

예.

그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좀 더 생겼습니까?

네, 조금 더 생겼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건 인터넷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인가요?

둘 다 생각을 해가지고.

둘 다? 어 둘 다도 되죠.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개발한 것 같습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까?

네.

아, 좀 더 창의적이라고. 아까 전에는 본인이 약간 창의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번에는 창의적으로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하고 그냥 평소 창의적인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 해결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있다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창의적이게 됐다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창의적이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

네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혼합수업도 하셨죠?

네네

그러면 온라인 수업 자체는 어떻게 느껴졌나요?

대체적으로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좋았다? 그러면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설명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에서도 많이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코스가 본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좋게- 좋게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쳤나요?

좋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 수업과는 관계없이 그냥, 그, 뭐라고해야 되나,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돼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혼합수업 때 한번 오프라인 할- 뭐라고 해야 하나. 직접 가서 들을 수 있게도 선택지를 주셨죠?

네네네.

그러면 오프라인에 참석하셨나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교실에 가보니까 어땠나요?

그냥 느낀 점?

예예

그냥 좀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집중이 잘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합 수업이라는 포맷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느끼셨다? 그, 괜찮다고 느끼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하는 것보다 온라인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수업에서 실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혼합이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뷰는 끝이 났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뭐, 바쁘신가요?

아뇨, 바쁘진 않아요.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때요?

대답하기. 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답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냥 뭐, 본인의 뭐라고 해야 하나. 본인이 느낀 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일단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 거고 어 남은 수- 시험이나 남은 과제 같은 거. 잘되길 바라고요 이만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